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신16:11, 막1:15, 행2:47)"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수 신 노회장

참 조 서기, 군경교정선교부장

제 목 총회군선교주일 군선교사역자 초청예배 요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2022년 6월 19일은 군선교 71주년(37회 총회(1952년)결의)을 기념하는 총회군선교주일입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총회군선교주일 총회장 목회서신을 보내드리오니, 노회 산하 지역교회로 배부하여 지역교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 노회에서 총회군선교주일에 노회 소속 군선교사역자(군종목사, 군선교사)를 초청하여 노회 소속 지역교회에서 설교 및 군선교보고를 실시할 수 있도록 요청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총회군선교주일 총회장 목회서신 1부.

2. 총회 소속 군선교사역자(군종목사, 군선교사) 명단 각 1부. 끝.



총 회 장 류
군 경 교 정 선 교 부 장 이

영
총



과장 고은숙 총무 문장옥 사무총장 김보현

시행 국내와 군·특수선교처-887 (2022.5.25.)

우 03128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3길 29, 6층 (연지동, 총회창립100주년기념관)

전화 02-3676-7300(9705)

전송 02-3676-8300

/kojamae0616@pcknet.org

/www.pck.or.kr

/공개

군선교주일 총회장 목회서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국 교회와 성도 여러분께 문안드립니다.

지금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 국토방위에 여념이 없는 60만 국군 장병들과 군종목사 및 군선교사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총회는 제37회(1953년)와 제62회(1977년) 총회에서 매년 4월 네 번째 주일을 '군선교주일'로 결의하여 지켜왔습니다. 제99회(2014년) 총회에서는 군선교 후원창구를 '총회군선교후원회'로 단일화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고, 다각적인 군선교현장의 변화에 따라 침체된 군선교현장을 다시 세우기 위하여 제106회(2021년)총회부터 군선교주일을 변경하여 호국보훈의 달과 함께 매년 6월 셋째 주일을 군선교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총회는 58명의 군종목사(여성군종목사 2명 포함)와 83명의 군선교사가 군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의 군선교 현장을 책임지기 위해 국방부에서 선발된 28명의 군종사관후보생들이 열심히 군선교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군선교는 한국교회를 위한 중요한 선교의 장입니다. 입대 장병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선교의 텃밭입니다. 해마다 약 15만 명의 장병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세례를 받고 있으며, 전역 후에도 이들을 지역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2년은 6·25전쟁 72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면서 동시에 전쟁 중 이승만 대통령의 공식적인 명령에 의해 군목제도가 실시 된지(1950.12.21.) 72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한국교회는 이러한 의미에 발맞추어 청년선교의 마지막 보루인 군선교를 강화하기 위해 '비전 2030'을 설정하였고, 이를 실천하고자 민·군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민간 거점교회를 통해 군장병들을 지역교회로 재파송하기 위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군선교사역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다음세대 통일 한국을 위해 크게 쓰임 받는 '십자가군병' 양성에 전국노회와 교회가 한마음으로 금년 6월 셋째 주일(19일)을 '총회군선교주일'로 지켜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또한 모든 교회가 총회 군종목사와 군선교사들을 격려하여 주시고, 군선교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선교 현장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한국교회의 다음세대 부흥과 직결되는 것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6회기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신16:11,막1:15,행2:47)라는 주제에 발맞추어 복음의 공공성과 교회의 헌신으로 군선교 현장을 더욱 활성화 시킨다면 머지않아 다음세대의 부흥을 목도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전국 노회와 교회, 군선교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사역자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2년 6월 19일

총회장 류영모 목사

총회군종목사 (노회별 분류)

(106회기 2022년 9월 기준)

	노회명	인원(57)	명단
1	서울노회	3	장윤진, 임지민, 임광식
2	서울동북노회	2	권순원, 최지훈
3	서울북노회	3	위진섭, 문은균, 장상원
4	서울강북노회	2	이영광, 윤하진
5	서울서노회	5	최태양, 성기우, 장문수, 김영훈, 홍석우
6	서울서북노회	4	이신우, 김진협, 황겸하, 나현빈
7	영등포노회	4	최찬송, 전이루, 강하람, 진주찬
8	경기노회	1	박희수
9	서울관악노회	2	유경수, 최명호
10	서울동남노회	3	김영석, 주찬양, 김은경
11	서울강동노회	1	나성한
12	서울강남노회	1	이재훈
13	서울서남노회	1	이요한
14	부천노회	1	이재건
15	인천노회	2	이 구, 이성호
16	충북노회	1	반세례
17	충청노회	1	이경훈
18	대전서노회	1	정 해
19	전주노회	1	이산호
20	전남노회	1	김재영
21	광주동노회	1	윤다윗
22	경남노회	1	정대호
23	부산노회	1	박동현
24	부산남노회	1	김대용
25	울산노회	1	김택조
26	경북노회	2	김정대, 윤대운
27	대구동노회	1	정은해
28	대구동남노회	1	유경부
29	평남노회	3	최광수, 민재원, 박승지
30	평북노회	4	박주현, 조추협, 조재영, 윤태훈
31	용천노회	1	황진호

총회군선교사 (노회별 분류)

(2022년 5월 기준)

	노회명	인원(83)	명 단
1	서울노회	2	김영근, 최정화
2	서울동노회	4	김병국, 송철호, 이상례, 임학규
3	서울북노회	4	김희운, 문애순, 이창희, 최흥석
4	서울강북노회	4	김강진, 김영철, 임연순, 조동섭
5	서울서노회	3	강신재, 김요한, 조부원
6	서울서북노회	3	박성만, 이금순, 임우철
7	영등포노회	2	김기문, 박상배
8	안양노회	2	고재천, 이빌립
9	경기노회	1	오정근
10	서울남노회	2	김영필, 윤정근
11	서울동남노회	1	김수일
12	서울강동노회	1	박동희
13	서울강남노회	3	고만석, 문충도, 엄무환
14	서울서남노회	1	김용관
15	서울강서노회	2	권정희(전), 이수미
16	부천노회	1	조용환
17	대전서노회	1	김남호
18	충남노회	4	강성동, 김영순, 이수건, 조태희
19	전북노회	5	김태영, 안창렬, 임승호, 임옥순, 한정환
20	전주노회	2	김수정, 송종덕
21	전서노회	2	김선우, 양명안
22	광주동노회	3	김광훈, 유한옥, 조영자
23	순천노회	1	장종원
24	땅끝노회	1	위삼성
25	진주노회	1	김대현(전)
26	진주남노회	3	김택실, 서종채, 오은주
27	경남노회	4	권윤택, 사재석(전), 윤광한, 이용호
28	부산노회	1	노석규
29	부산동노회	1	김용선
30	울산노회	2	신성호, 최병락
31	경북노회	2	김명진, 황운선
32	강원노회	3	김동열, 김희권, 임승호
33	강원동노회	2	임동필, 최철규
34	평양노회	1	조도연
35	평남노회	2	김선영, 이영애
36	평북노회	2	박선규, 이용수
37	용천노회	2	이소영, 하천호
38	함해노회	2	김옥하, 노기돈